

내 심정 받고 역사를 이루는 1명이 되어라.

작성일 : 2010. 09. 02. (목)

작성자 : 김진미 (부산열매교회, 교역자)

예수님께서 시간의 급절함을 계속 말씀해주셔서 긴장하며 시간을 아끼며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귀한 내 사랑아.

오늘 너에게 답답한 내 심정 말하고자 한다.

이 지구촌.. 내 사랑하는 자들..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여

내 피붙이 내 살붙이처럼 귀하고 귀한 내 사랑들이다.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고사리 손을 모아 나를 찾으며

이슬 같은 눈물 흘리며 나를 찾는 자들 보면

내 마음 기쁨으로 가슴 벅차다.

한편 나를 알아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나에게 무관심하며 매정하게 나를 홀대하는 자들.

내 이름 부르며 아직도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자들.

그들을 보면 내 마음 찢어지고 내 피붙이 들인지라

내 살점이 찢기고 찢기는 고통을 받는 듯 아프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귀한 신부의 역사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림 받은 내 사랑들아.

너희만큼은 내 심정.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 알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

내 마음 느껴지느냐?

정녕 느껴지느냐?

내 심정 너희 깨닫고 알아주기를 위하여

너희 선생 펜대를 잡고 내 말 받아 적게 하였다.

너희 선생 밤낮 노심초사

내 말 어찌 받아 내 심정 어이 전할까?

걱정 또 걱정이다.

말씀으로 이리 찢러도 보고 저리 찢러도 보고

사랑으로 이리 찢러도 보고 저리 찢러 보아도

반응이 없는 내 신부들.

듣기만 하고 내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신부들.

내 사랑 느끼지 못하는 신부들.

휴~~

어찌 하겠느냐?

눈물만 난다.

한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눈물 내리다

주룩 주룩 주룩... 이내 쏘~

내 눈물 하염없이 흐른다.

여름 철 장맛비처럼

순간순간 장대같이 쏟아지는 내 눈물..

내 눈물 알까?

내 심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 애인이 내 심정 모르니 더 가슴 아프다.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심정 너무 알아드리지 못해서... 늘 자기 아픔, 자기 고통, 자기 일, 자기 삶에 빠져서 주님 심정 온전히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사랑아.

그래 내 마음 너무 답답하다.

내 심정 몰라 답답.

내 사랑 몰라 답답.

나 예수를 몰라 답답.

내 뜻 몰라 답답.

내 말귀 못 알아들으니 답답.

내 뜻 알지 못하니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

선생 상황 모르니 답답.

선생 심정 모르니 답답.

늘 자기 입장에서 선생 사랑만 받고자 하니 답답.

내 말씀 목숨 걸고 귀하게 보지 않으니 답답.

시간 귀하게 쓰지 않으니 답답.

네 앞에 나 있는 대도 모르니 답답.

아무리 불러도 내 음성 듣지 못하니 답답.

정말 내 말에, 이 시대 이 역사를 보고

충격 받지 않으니 답답.

이 역사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고 뛰지 않으니 답답.

답답. 답답. 답답. 답답!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리 지체할 시간 없는데...

내 심정 알아주는 자 선생 1명
그의 심정 알고 뛰어 주는 자 1명

그리고....1명, 1명, 1명....?

하~

누가 있느냐?
내 심정 제대로 알고
불이 되어 뛰는 자 누가 있느냐?
불을 사르며 자신을 사르며 뛰는 자 누가 있느냐?

말해 보아라.

재가 되어 사라질 만큼
불이 되어 불을 사르며 뛰는 자 누가 있느냐.

불꽃 같이 타 올랐다가 불티 같이 사라지는구나.

6000년 만에 이룬 이 역사의 가치를
내 이 엄청난 기대를 아는 자 누가 있느냐?
제대로 깨달은 자 잠을 청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심정 받아 깨달아도 3일을 넘기지 못하는구나!

쏟아지는 말씀...
더 부어 내야 하나?
변화가 없다면 어찌해야 하나?
기적같이 이뤄낸 계시의 역사...
변화가 없다면 어찌해야 하지?
성령의 역사.
결실이 없다면 어이해야 하나?

모두 중단해야 하나?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께서 목숨 거시고 역사해 오셨는데... 자기 하나 온전히 내어 놓지 못하고 목숨 다 해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목숨 건 1명이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이 살게요. 도와주세요.)

하~~
내 마음 무겁구나.
너희 선생 마음 천근만근이다.

일의 무게로 치이고,
너희 돌아보느라 치이고
내 심정 살피느라 밤낮 없이 치이고
이 역사 이뤄야 할 책임감에 치이고
너희 1명도 지옥의 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적 전쟁 지지 않으려 치이고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 길...
천길 만길 하염없이 가고 있다.

그를 보는 내 마음도 천근만근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 하시겠냐?

내 마음 다 표현하면 감당할 수도 없다.

사랑아. 내 사랑들아.
내 마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 내 마음 다 받을 수도 없다.
다 받으면 견디지 못하지...

그러나 내 사랑아.
내 마음, 내 사랑 다 받을 수는 없어도
그 마음이 어떤지 온전히 알아주길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보아라.
그 문으로 내 들어갈 테니
내 마음 내 사랑 받거라.
그리고 내 마음, 내 사랑 놓치지 말아라.
나를 불꽃같이 맞이하고
돌아서면 불티같이 사라지는 사랑 말아라.

내 마음 받았으면
그 받은 것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받은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상황으로든
내 마음 받았으면 깊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연구하여
삶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거라.
나에게 꼭 물어보고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고
또 선생과도 상의하고

내 너에게 둔 뜻을 이뤄야 한다.

계시를 받는 자들.

내 말만 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심정의 말씀을 받았으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왜 네게 그 말을 하였느냐?

생각 또 생각, 연구 또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발견하고

그 뜻 몸으로 이뤄야 한다.

내 사랑아

알겠느냐?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내 글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다이나?

아니다.

내 심정 주어, 내 사랑 알게 하고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너에게 심정을 주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냐?

모든 자들 동일하다.

내가 너희에게 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새벽 말씀까지 주며 역사하겠느냐?

내 심정, 내 사랑 주고자 함이요.

내 마음, 내 심정으로

이 역사 같이 이뤄가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 모두 다시 온전히 말씀을 보아라.

그리고 깊은 심정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목숨 건 기도하
라.

그리고 내 지시한 대로 무조건 움직여 보아라.

모두 다시 시작하여라.

단상의 말씀 다시 보거라.

내 심정 제대로 받으라.

내 역사 온전히 알라.

너희 삶이 달라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내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지 마라.

말씀이 생명줄이다.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너, 너, 너는

역사를 이루는 1명이 되어라!

그것이 네 사명이요 너희 갈 길이다.

모두가 시대 재림을 알리는

온전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배우고 네 온 몸 불사르며 외치라.

너무나 답답하여

내 깊은 속 얘기하였다.

내 말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를 여전히 기대하며 나 예수